

극지해소식

No.164

31 Aug

www.kmi.re.kr

발행인 조정희 원장 책임 김엄지 극지전략연구실장
작성 김주형 부연구위원, 김지영 전문연구원, 엄단비 전문연구원
유지원 연구원, 정다현 연구원, 한다희 연구원

감수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담당자 한다희 051)797-4633 (dhhan@kmi.re.kr)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 소식

북극이사회/국제기구

북극이사회/국제기구 | EU, 러시아산 LNG 제재 예외 허용·야말 LNG 운송·거래 일부 허용 2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 트럼프 대통령, 신규 북극 대사로 줄리아 네세이왓 지명 4
캐나다·스웨덴 | 캐나다·스웨덴, 중앙 북극해 대륙붕 과학조사 6
노르웨이 | 노르웨이 북극권 지자체, 재정 건전성 크게 악화 8
덴마크·페로제도 | 덴마크·페로제도, 북대서양·북극 안보 협력 강화 10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그린란드 | 그린란드, 미국계 기업의 석유 시추 계획에 제동 12
스웨덴 | 스웨덴 극지연구소, 북극 해저케이블 구축 해저 조사 14
핀란드 | 핀란드 총리, 로바니에미서 EU 북극 정상회의 개최 예정 15
러시아 | 북극권 산업·과학·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2.9조 루블 투자 16
러시아 | 야말 네네츠 자치구, 오지지역 연료 공급 약 80% 완료 18
러시아 | 사하공화국, 제2북합물류센터 조성 추진·북극 물류 강화 19

읍서버 국가 정책

일본 | 일본 정부, 남극 환경 보호 법률 개정안 시행 20
인도 | 인도 의회 외교상임위원회, 정부에 장기 극지 정책 수립 권고 22

남극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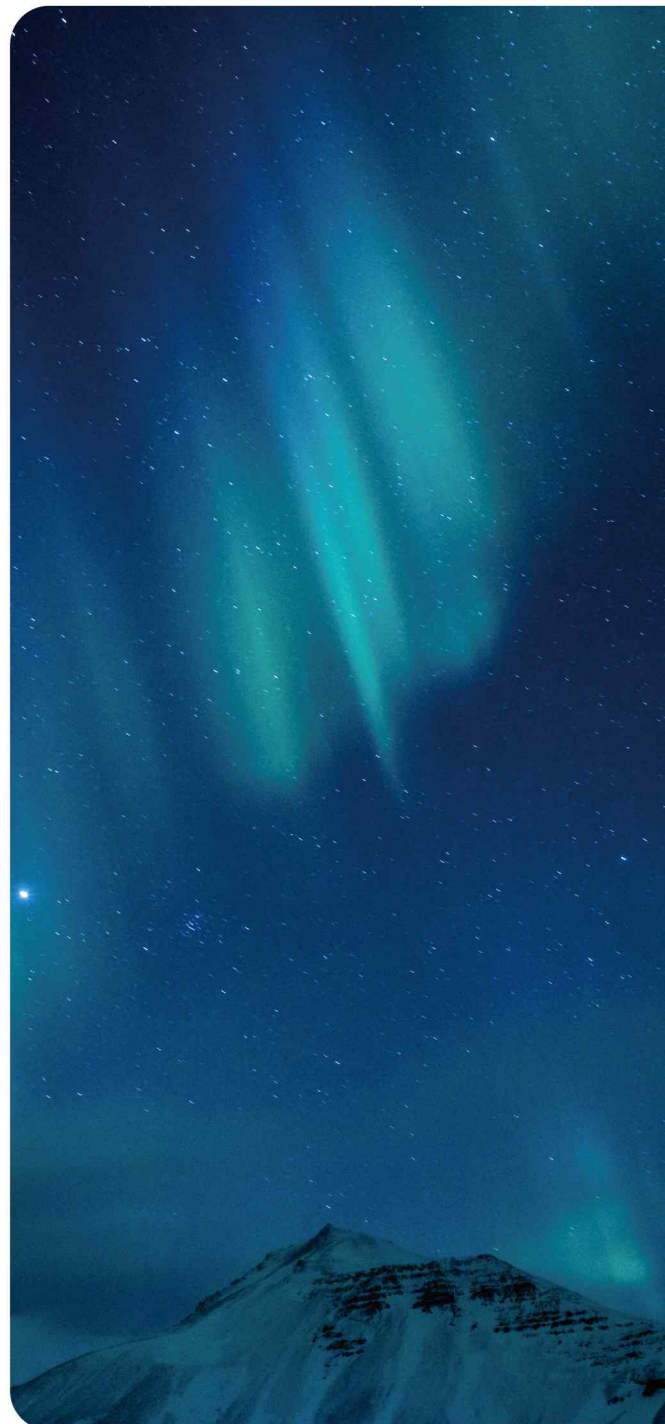
유럽 비온드 에피카 팀, 남극 빙하 코어 2.8km 굴착 성공·120만 년 기후 기록 확보했다. 24

극지의 창(窓)

북극아카데미, 교육을 넘어 국제협력 네트워크로 25

북극과 사람

지역에서 태어날 권리: 이누이트 조산과 공동체 기반 돌봄 31



북극이사회/ 국제기구

글: 정다현 연구원
Jeong.DH@kmi.re.kr

출처1: <https://en.highnorthnews.com/politics/eu-softens-russian-lng-sanctions-allowing-shipping-and-trading-to-continue-beyond-2027/1115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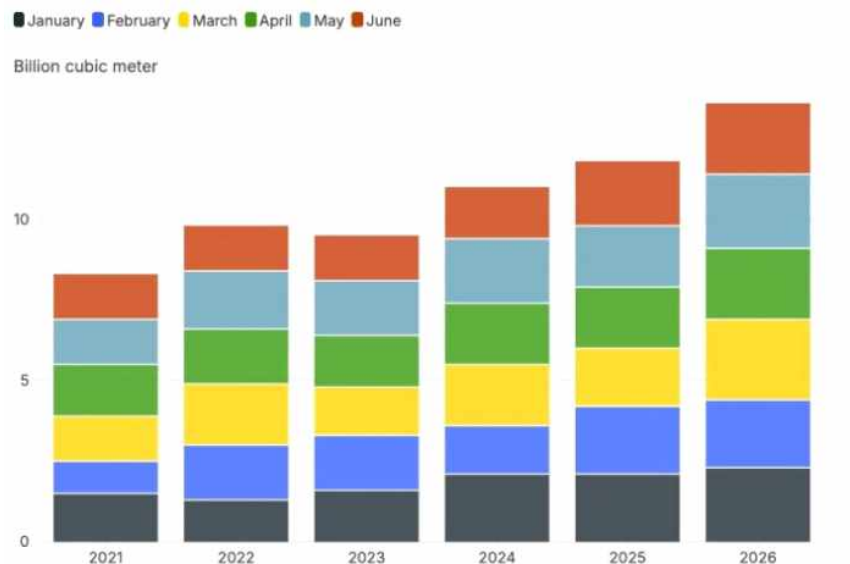
출처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6/07/23/21st-package-of-sanctions-eu-hits-russian-energy-financial-services-and-crypto-hard/>

EU, 러시아산 LNG 제재 예외 허용...야말 LNG 운송·거래 일부 허용 (2026.8.4.)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제재에 예외 조항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럽 기업들은 2027년 이후에도 러시아산 LNG를 제3국으로 운송하거나 관련 물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EU의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 포함됐는데, 러시아 북극 야말반도의 '야말 LNG(Yamal LNG)' 프로젝트의 향후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는 기존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LNG의 역내 구매·수입·이전을 제한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2월 24일(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체결된 장기계약 건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에 근거한 제3국 운송 및 연관 물량 구매는 최소 2027년 7월 25일까지 허용된다. 이후에는 EU 이사회가 매년 경제적 효과 및 제재 목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림〉 EU의 러시아산 LNG 수입 추이(2021~2026년 상반기)



Source: Kpler, IEEFA's European LNG tracker.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자료: Kpler, IEEFA European LNG Tracker

이번 조치로 프랑스 토탈에너지(TotalEnergies), 스페인 나투르지(Naturgy) 등 유럽 에너지 대기업들은 일정 조건하에 러시아산 LNG를 구매한 뒤 EU

북극이사회/
국제기구

역의 시장에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북극 전문 매체 '하이노스 뉴스(High North News)'는 이번 예외 인정으로 인해 유럽 선사와 트레이딩 기업들이 글로벌 러시아산 LNG 수출망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제재(안) 조정 과정에서는 그리스 해운업계의 이해관계도 반영됐다. 그리스는 자국 해운사 다이나가스(Dynagas)가 운항하는 Arc7급 쇠빙 LNG 운반선이 야말 LNG 수송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보호 조항을 요구했다. 이후 제3국 운송 및 관련 구매에 대한 예외가 포함된 제21차 제재 패키지가 승인됐다.

EU의 이번 타협안은 야말 LNG 프로젝트의 상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야말 LNG는 그간 유럽 선사·트레이더·터미널 등과 연계된 물류 체계에 깊이 의존해 왔다. 2027년 이후 유럽 기업의 참여가 전면 봉쇄될 위기였으나, 이번 예외 조항으로 기존 계약 범위 내에서는 운송과 거래가 지속될 수 있게 됐다.

한편, EU는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다른 제재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의 자동 조정 절차를 2027년 7월까지 일시 중단하고, 러시아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 관련 선박을 추가 제재 목록에 등록했다. 또한 LNG 운반선 매각 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 측으로의 재판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추가로 도입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글: 한다희 연구원
dhhan@kmi.re.kr

출처: <https://en.highnorthnews.com/politics/julia-nesheiwat-could-become-the-new-us-arctic-ambassador/1115987>

<https://www.arctictoday.com/white-house-names-new-arctic-ambassador/>

트럼프 대통령, 신규 북극 대사로 줄리아 네셰이왓 지명
(2026.8.10.)

〈그림〉 신임 북극 대사, 줄리아 네셰이왓(Julia Nesheiwat)



자료: <https://www.americansecurityproject.org/about/consensus/members/julia-nesheiwat-ph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국토안보 보좌관을 지낸 줄리아 네셰이왓(Julia Nesheiwat)을 미국 북극 담당 특임대사(U.S. Ambassador-at-Large for the Arctic)로 지명했다. 미국은 2024년 가을, 알래스카 출신 북극 전문가인 마이크 스프라가(Mike Sfraga)를 상원의 인준을 받아 최초의 북극대사로 임명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스프라가는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 자리는 18개월 이상 공석이었다.

네셰이왓의 지명안은 8월 7일 총 21명의 인사 지명안과 함께 상원에 제출됐으며, 같은 날 상원 외교위원회(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에 회부됐다. 상원은 몇 시간 뒤 휴회에 들어갔으며 9월 14일 회기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인준 청문회는 가을 이전에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해당 직위를 신설 직위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직위의 복원에 해당한다. 알래스카 출신 지리학자 마이크 스프라가(Mike Sfraga)는 2024년 9월 미국 최초의 북극대사로 취임했으나, 행정부가 교체된 2025년 1월 20일 사임했다. 이후 이 자리가 공식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12월 서명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FY2026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해당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직위가 법률로 명문화되고, 행정부에 임명 의무가 부과됐다.

네세이왓은 학계보다는 국가안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사다. 미 육군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제10대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을 역임했다. 이전에는 대통령 인질문제 특사 대행, 국무부 에너지 담당 부차관보, 미국 북극연구위원회(US Arctic Research Commission)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는 북미 에너지 인프라 기업 티시 에너지(TC Energy)의 정책·인사이트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미국 대서양 위원회(Atlantic Council) 석학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북극의 해상교통로와 핵심광물을 둘러싼 러시아·중국과의 경쟁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북극대사 지명과 관련하여 토머스 이매뉴얼 댄스(Thomas Emanuel Dans) 미국 북극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줄리아라는 진정한 북극 전문가이자 훌륭한 외교관을 얻게 됐다. 그는 뛰어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경우, 네세이왓은 트럼프 현 행정부에서 북극 업무를 전담하는 최초의 상원 인준 고위 당국자가 된다. 다만, 북극 관련 업무는 이미 여러 인사가 관여하고 있어 역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린란드 관련 업무에는 2025년 10월 덴마크 왕국 주재 미국대사로 인준된 켄 하워리(Ken Howery)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특사(special envoy to Greenland)로 지명한 루이지애나주지사 제프 랜드리(Jeff Landry)가 관여하고 있다.

네세이왓은 도쿄공업대학(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과학·공학 분야 박사학위와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국가안보학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미 국무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에너지 정책 및 인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네세이왓의 배우자인 마이크 왈츠(Mike Waltz)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엔 주재 미국대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측근 인사로 평가된다.

북극권 국가 정책



캐나다

스웨덴

글: 유지원 연구원
jwyoo25@kmi.re.kr

출처1: <https://www.polar.se/en/expeditions/canada-sweden-arctic-ocean-2026/>

출처2: <https://www.canada.ca/en/canadian-coast-guard/news/2026/08/canadas-largest-icebreaker-reaches-the-north-pole.html>

캐나다·스웨덴, 중앙 북극해 대륙붕 과학조사 (2026.8.10.)

캐나다와 스웨덴이 중앙 북극해의 해저지형과 지질구조를 조사하기 위한 공동 과학탐사에 착수했다. 스웨덴 극지연구소(Swedish Polar Research Secretariat)와 캐나다 지질조사국(Geological Survey of Canada)이 공동으로 ‘캐나다-스웨덴 북극해 2026(Canada-Sweden Arctic Ocean 2026)’라는 이름의 이 탐사는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는데, 중앙 북극해 해저를 지도화하고, 대륙붕의 지질·지구물리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번 탐사에는 스웨덴의 대형 쇄빙연구선 오덴(Oden)호와 캐나다 해안경비대 소속 쇄빙선 루이스 S. 세인트로랑(CCGS Louis S. St-Laurent)호가 공동으로 투입됐다. 두 쇄빙선은 8월 10일 탐사를 시작해 중앙 북극해로 이동했으며, 8월 16일에는 북극점에 도달했다. 오덴호에는 모두 35명의 연구진이 승선해 있으며, 스웨덴과 캐나다뿐 아니라 덴마크·그린란드 연구진도 탐사에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쇄빙선에는 해양포유류에 대한 전통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이누이트족 북극 원주민 옵서버도 승선했다.

이번 탐사의 주요 목적의 하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캐나다의 대륙붕 외측 한계 설정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UNCLOS에 따르면 연안국은 일정한 과학적·지질학적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0해리를 넘어 연장되는 대륙붕에 대해서도 해저와 하층토의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저지형과 지질구조 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캐나다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북극해에서 자국 대륙붕의 범위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지속해 왔으며, 이번 공동탐사 역시 캐나다의 UNCLOS 관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구진은 특히 알파 해령(Alpha Ridge), 멘델레예프 해령(Mendeleev Ridge) 및 로모노소프 해령(Lomonosov Ridge) 등을 대상으로 지구물리·지질 조사를 실시한다. 오덴호에 설치된 다중빔 음향측심기(multibeam echosounder)와 해저지층탐사기(sub-bottom profiler) 등을 활용해 해저지형과 상부 퇴적층 구조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해저 퇴적물 시료도 채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앙 북극해 해저의 구조와 북극 대륙붕의 지질학적 연속성 및 범위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북극권
국가 정책

캐나다



스웨덴

캐나다는 이번 탐사를 단발성 조사보다는 북극해 대륙붕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사활동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해안경비대는 2026년 루이스 S. 세인트로랑호의 활동이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와 수산해양부(Fisheries and Oceans Canada)를 지원하는 2024~2027년 북극 임무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번 항해에서도 캐나다 대륙붕의 범위와 외측 한계를 규명하기 위한 고해상도 지구과학·수로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대륙붕 조사와 함께 북극의 기후·해양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과학연구도 병행된다. 연구진은 해저뿐 아니라 해빙, 해류, 기상, 에어로졸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하며, 헬리콥터와 드론, 부이 및 각종 센서시스템을 활용해 해양·해빙·대기 간 상호작용을 조사한다. 해양지질과 지구물리학 외에도 기상, 해빙 특성, 해양학·해양화학, 해양생태계 등을 포함한 연구가 동시에 수행된다. 이를 통해 대륙붕 관련 지질자료뿐 아니라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앙 북극해의 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과학자료도 축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탐사에서는 차세대 극지 연구자 양성을 위한 국제 연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박사과정생과 신진연구자들이 선상 강의와 세미나뿐 아니라 실제 해빙과 해양에서 진행되는 관측·시료채취에 참여하며, 해양지질·해양학·기상·해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다. 탐사를 통해 확보된 연구자료는 향후 스웨덴 및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탐사는 중앙 북극해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확대하는 동시에, UNCLOS에 따른 캐나다의 대륙붕 외측 한계 설정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알파·멘델레예프·로모노소프 해령 등 중앙 북극해의 지질구조에 대한 정밀한 해저지형·지질자료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향후 북극해 대륙붕의 지질학적 구조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가 더욱 보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권
국가 정책노르웨이 북극권 지자체, 재정 건전성 크게 악화
(2026.8.4.)

노르웨이 북부 트롬스(Troms)와 핀마르크(Finnmark)의 상당수 지자체가 낮은 운영수지와 높은 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4일 트롬스주와 핀마르크주를 공동 관할하는 국가행정관실이 노르웨이 통계청의 지방정부 회계통계를 토대로 발표한 2025년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두 지역 내의 다수 지자체가 마이너스 순운영수지를 기록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트롬스의 순운영수지는 수입 대비 -0.5%, 핀마르크는 0.1%를 기록해 오슬로를 제외한 노르웨이 전국 평균인 2.1%를 크게 밑돌았다. 권고 수준 이상의 순운영수지를 확보한 지자체도 트롬스에서는 3곳, 핀마르크에서는 7곳에 그쳐, 상당수 북부지역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부채 수준이 주요 재정 부담으로 지적됐다. 트롬스의 순대출부채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25%p 높아 노르웨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핀마르크 역시 전국 평균을 17.5%p 웃돌았다. 두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 이상의 부채를 보유한 지자체가 다수 확인됐으며, 높은 부채와 낮은 운영수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여력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적립 재원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용도가 특정되지 않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는 자유적립 기금 규모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자체는 트롬스주와 핀마르크주 내에서 각각 6곳에 불과했다. 트롬스-핀마르크 주 지사실은 북부 지자체들이 높은 부채 수준과 제한적인 재정적 완충 능력을 동시에 보이고 있어 향후 재정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중앙정부의 강화된 재정 감독 대상에 포함돼 있다. 현재 트롬스와 핀마르크에서는 총 5개 지자체가 재정 불균형을 이유로 정부의 재정 통제 목록인 ‘재정의무 정부승인 등록부(Register for Governmental Approval of Financial Obligations, ROBEK)’에 등재돼 있으며, 트롬쇠(Tromsø)와 카라쇼크(Karasjok) 등 추가 지자체도 재정 상황에 따라 향후 등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ROBEK에 등록된 지방정부는 예산과

글: 유지원 연구원
jwyoo25@kmi.re.kr

출처1: <https://en.highnorthnews.com/politics/municipalities-in-the-norwegian-arctic-struggle-financially/1115543>

출처2: <https://www.regjeringen.no/no/tema/kommuner-og-regioner/kommuneokonomi/robek-2/id449305/>

출처3: <https://www.statsforvalteren.no/nb/troms-og-finnmark/nyheter/2026/08/kostrarapport-kommunene-sliter-okonomisk/>

북극권
국가 정책

노르웨이

차입 등 일부 재정운영에서 중앙정부의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된다.

이번 재정 악화는 노르웨이 북극권 지방정부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지역 공공서비스 유지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트롬스와 핀마르크는 광범위한 지역에 인구가 분산돼 있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지역사회와 공공서비스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낮은 운영수지와 높은 부채가 장기화되고 중앙정부의 재정감독 대상 지자체가 확대될 경우, 향후 북부지역의 지방재정 운용과 공공서비스 제공 여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노르웨이 북부 트롬스(Troms)·핀마르크(Finnmark)



자료: 노르웨이 정부

(<https://www.regjeringen.no/no/tema/kommuner-og-regioner/kommunestruktur/fylkesinndelingen-fra-2024/id2922222/>)

북극권 국가 정책



글: 유지원 연구원
jwyoo25@kmi.re.kr

출처1: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6/08/06/arctic-high-on-agenda-at-denmark-faroe-islands-meeting/>

출처2: <https://www.fmn.dk/da/nyheder/2026/styrket-samarbejde-og-oget-aktivitet-i-og-omkring-faroeerne>

덴마크·페로제도, 북대서양·북극 안보 협력 강화 (2026.8.6.)

덴마크와 페로제도(Faroe Islands)가 최근 변화하는 북극·북대서양 안보환경에 대응해 방위·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페 브루스(Jeppe Bruus) 덴마크 국방장관과 바르두르 아 스테이그 닐센(Bárður á Steig Nielsen) 페로제도 외교·수산업 장관은 지난 8월 페로제도 수도 토르스하운(Tórshavn)에서 회담을 갖고 북부지역 안보와 향후 방위훈련 및 군사활동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덴마크 국방부는 회담 이후 양측이 2026년부터 페로제도 안팎에서 군사활동을 점진적·주기적으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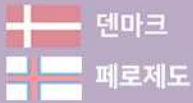
향후 페로제도 주변에서 이루어질 군사활동은 덴마크 왕국의 북극지역 훈련 프레임워크인 ‘북극의 인내(Arctic Endurance)’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북극의 인내 관련 활동 범위를 페로제도까지 확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주도하는 북극지역 다영역 군사활동인 ‘북극 경비(Arctic Sentry)’와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덴마크는 이를 통해 페로제도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덴마크 왕국의 공동 안보와 NATO에 대한 기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덴마크군과 페로제도 해안경비대인 보른(VØRN) 간 공동훈련을 비롯해 NATO 해양작전 지원, F-35 전투기를 활용한 순찰, 호위함 및 수송기의 활동 확대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와 페로제도 당국은 이러한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조정·평가하고, 페로제도와 관련된 방위·안보 활동을 현지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페로제도 정부는 최근 안보환경을 고려해 덴마크 및 NATO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닐센 장관은 덴마크 및 동맹국과의 방위·안보 협력 강화가 페로제도의 명확한 우선순위라면서 북대서양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과제에 정치적·작전적으로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관은 페로제도 공영방송(KVF)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새로운 방위협정이 체결된 것은 아니며, 양측이 북부지역 안보와 북극의 인내 훈련을 포함한 향후 방위 훈련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신규 방위협정 체결보다는 페로제도 주변의 군사 활동과 양측 간 안보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극권 국가 정책



덴마크

페로제도

페로제도는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영국 사이에 위치해 북극과 북대서양을 연계하는 안보환경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NATO는 북극을 북대서양으로 이어지는 관문이자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통신망이 위치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북극과 북대서양을 연계한 감시 및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페로제도 주변에서의 군사활동 확대는 덴마크 왕국의 주권·해역 감시뿐 아니라 북대서양에서 NATO의 상황인식 및 작전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페로제도는 덴마크 왕국을 구성하는 자치지역으로, 해양자원 관리와 환경, 에너지, 통상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독자적인 입법·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외교·안보·국방 정책은 페로제도가 단독으로 이양받을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어 덴마크 왕국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번 협력은 덴마크가 최근 추진해 온 북극·북대서양 방위역량 확대의 연장선에서도 주목된다. 덴마크는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북극·북대서양 지역의 감시 및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같은 해 10월 발표된 제2차 북극·북대서양 협정에는 총 274억 덴마크크로네(DKK) 규모의 투자를 통해 북극 함정 추가 확보, 해상초계 역량 강화, 드론 추가 도입, 그린란드 내 항공감시레이더 구축, 북대서양 해저케이블 설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협정은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및 페로제도 자치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북극·북대서양에서 주권 수호와 감시, 작전 및 NATO·동맹국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덴마크의 방위역량 강화는 NATO가 북극 및 하이 노스(High North)에서 군사활동을 확대하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NATO는 2026년 2월 북극지역의 역지·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다영역 군사활동인 ‘북극 경비’를 출범시켰으며, 북극·북대서양에서 동맹국의 군사자산과 훈련을 연계하고 감시·상황인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페로제도 주변에서 추진되는 공동훈련과 F-35 순찰 등도 이러한 NATO 활동과 연계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덴마크·페로제도 간 협력 강화는 덴마크 왕국 차원의 북극·북대서양 방위역량 확대와 NATO 차원의 북극 방위태세 강화가 페로제도를 매개로 구체화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그린란드

글: 유지원 연구원
jwyoo25@kmi.re.kr

출처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aug/12/trump-greenland-oil>

출처2: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6/08/12/greenland-rules-out-winter-2026-27-drilling-for-nunap-qeqqa-jameson-land-oil-project>

출처3: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jul/09/licence-to-drill-trump-linked-texas-oil-company-elbowing-into-greenland>

그린란드, 미국계 기업의 석유 시추 계획에 제동 (2026.8.12.)

그린란드 정부가 그린란드 동부 제임슨 랜드(Jameson Land)에서 미국계 에너지 기업 그린란드 에너지 컴퍼니(Greenland Energy Company, 이하 GLND)가 추진 중인 석유 탐사 시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GLND는 영국 자원 개발기업 80마일(80 Mile Plc)과 함께 제임슨 랜드의 석유 부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탐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당초 2026년 하반기 현장 시추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린란드 정부가 환경·사회적 영향 검토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예정된 시점까지 완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추 계획은 2027년 이후로 연기됐다.

제임슨 랜드는 그린란드 동부의 대규모 육상 퇴적분지로 과거부터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제기돼 온 지역이다. 그린란드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2021년 신규 석유·가스 탐사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했으나, 제임슨 랜드 사업은 정책 변경 이전에 부여된 기존 탐사권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어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제임슨 랜드 사업은 아직 상업적 석유 매장량이 확인된 개발사업이 아니라, 실제 시추를 통해 석유 부존 여부와 자원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탐사 단계에 있다. GLND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임슨 랜드 일대에 상당한 규모의 잠재적 석유 자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아직 시추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예상 자원량에 해당한다. 따라서 향후 탐사 시추 결과를 통해 실제 석유 부존 여부와 상업적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사업은 최근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기업이 현지 에너지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GLND의 이 프로젝트에는 트럼프 행정부 및 그 지지 인사들과 연계된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특사로 지명된 제프 랜드리(Jeff Landry) 루이지애나 주지사 역시 제임슨 랜드의 석유개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단순한 민간기업의 석유 탐사를 넘어 미국의 그린란드 및 북극 자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그린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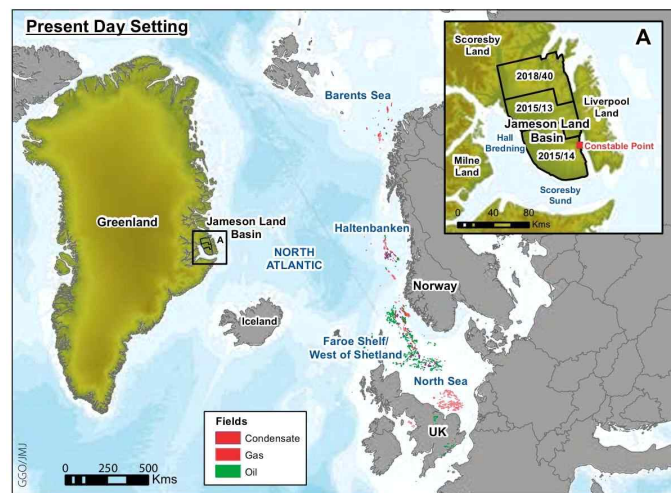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문제와 그린란드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시추 예정지역에는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에 따라 보호되는 습지가 포함돼 있으며, 다양한 조류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석유 탐사에 앞서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2026년 여름 사업자가 관련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 일부 시추 장비를 현지로 이동 시키면서 그린란드 정부가 기업 측에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등 정부와 사업자 간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 람사르 협약이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와 그 생태계를 보전하고 습지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임

이에 그린란드 정부는 사업의 환경·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승인 절차를 완료하기에는 기존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다고 판단해 2026~2027년 겨울 중 시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시추에 앞서 그린란드의 관련 규제와 환경·사회영향 평가 절차를 충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GLND 역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시추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임슨 랜드 석유 탐사사업은 관련 인허가와 환경·사회적 영향 검토를 거쳐 빨라도 2027년 겨울 이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GLND는 추가로 확보된 기간 동안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그린란드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이 사업의 진행 여부는 실제 석유 부존 가능성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그린란드 정부의 환경정책과 인허가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그린란드 동부 제임슨 랜드 위치



자료: <https://geoexpro.com/hydrocarbon-potential-of-the-jameson-land-basin/>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스웨덴 극지연구소, 북극 해저케이블 구축 해저 조사
(2026.7.26.)

스웨덴 극지연구소(Swedish Polar Research Secretariat)은 폴라 코넥트(Polar Connect)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쇠빙선 오덴(Oden)호를 활용한 북극 탐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폴라 코넥트는 북극을 경유해 유럽, 북미,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디지털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이다.

폴라 코넥트는 북극해를 횡단하는 잠재적 케이블 경로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지식과 계획 데이터를 제공하고, 현재 이용량이 많고 취약성이 높은 유럽-아시아 간 기존 데이터 통신 경로를 보완할 대체 연결망 구축을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폴라 코넥트는 북극해를 가로질러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으며 대용량의 디지털 회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탐사는 중앙 북극해의 해저 지도 작성 및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둔다. 향후 케이블 경로 계획과 해양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중빔 수심측량(multibeam bathymetric mapping), 지구물리 탐사, 해양학적 관측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한 해저 조사는 2025년 ‘캐나다-스웨덴 북극 해양(Canada-Sweden Arctic Ocean 2025)’ 탐사사업의 하나로 수행된 바 있다.

폴라 코넥트는 또한 향후 구축될 광섬유 인프라가 첨단 센싱 기술과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해양기후-지구물리 관측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이 구현될 경우 접근이 어려운 북극해 지역에서도 장기적인 환경 모니터링과 과학적 관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탐사는 과학·기술적 조사뿐만 아니라 향후 북극 인프라와 국제협력에 관한 지식 교류 및 전략적 논의를 위한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북극 환경, 해저 조사, 데이터 관리 및 디지털 연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와 인프라 전문가, 운영 관계자들이 오덴 호에 승선해 북극 연결망의 기술적·과학적·전략적 측면을 논의한다.

스웨덴 극지연구소는 북극에서의 운영 전문성과 핵심 연구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쇠빙선을 활용한 탐사, 해저 조사 및 북극해 데이터 수집을 수행함으로써 폴라 코넥트 사업이 실제 북극 환경에서 실현 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스웨덴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북극 현장 운영 경험과 독자적인 극지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글: 한다희 연구원
dhhan@kmi.re.kr

출처: <https://www.polar.se/en/expeditions/polar-connect-2026/>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글: 한다희 연구원
dhhan@kmi.re.kr

출처: <https://valtioneuvosto.fi/en/-/prime-minister-orpo-to-host-arctic-summit-of-eu-leaders-in-rovaniemi>

핀란드 총리, 로바니에미서 EU 북극 정상회의 개최 예정
(2026.8.24.)

페테리 오르포(Petteri Orpo) 핀란드 총리는 9월 13~14일 핀란드 로바니에미(Rovaniemi)에서 개최되는 ‘유럽 북극 정상회의(European Arctic Summit)’에 유럽연합(EU) 정상급 인사를 초청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북극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북극에 대한 EU의 공동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르포 총리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정상회의와 관련해 “북극 지역은 유럽의 안보 환경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EU는 북극의 안정과 안보, 지속가능한 발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안을 EU 정상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 도날트 투스크(Donald Tusk) 폴란드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 크리스텐 미할(Kristen Michal) 에스토니아 총리, 안드리스 쿠베르그스(Andris Kulbergs) 라트비아 총리, 기타나스 나우세다(Gitanas Nausėda) 리투아니아 대통령, 니쿠쇼르 단(Nicușor Dan) 루마니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참석한다.

회의 일정과 연계해 EU 회원국 및 EU 기관 정상들은 9월 13일 일요일 알렉산데르 스투브(Alexander Stubb) 핀란드 대통령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오르포 총리는 이전에도 EU 정상들을 핀란드로 초청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25년 12월에는 헬싱키에서 ‘동부전선 정상회의(Eastern Flank Summit)’가 개최됐으며, 2024년 12월에는 사리셀카(Saariselkä)에서 유럽의 안보 과제를 논의하는 ‘남북 정상회의(North South Summit)’가 개최됐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출처: <https://arctic-russia.ru/news/master-plan-kirovsko-apatitskoy-i-monchegorskoy-agglomeratsiy-obespechat-rost-investitsiy-i-kachestv/>

북극권 산업·과학·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2.9조 루블 투자 (2026.8.18.)

러시아 정부가 북극권 핵심 도시와 산업거점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도시·산업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와 극동북극개발공사(KRDC) 등이 참여해 추진 중인 키롭스크-아파티티(Kirovsk-Apatity) 및 몬체고르스크(Monchegorsk) 광역권 마스터플랜은 산업과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광, 생활 인프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러 정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북극권 15개 도시 및 광역권을 대상으로 2035년까지 총 2조 9,000억 루블을 투입해 51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체 재원의 약 60%는 민간 투자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키롭스크-아파티티 광역권은 키롭스크, 아파티티, 폴라르니예 조리와 주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약 8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을 광물자원 개발과 과학기술, 관광산업이 결합된 북극권 복합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아파티티는 러시아 북극의 주요 과학연구 중심지이자 창의산업 클러스터로, 키롭스크는 연방 차원의 동계스포츠 중심지이자 러시아 북부의 주요 스키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러시아 전체 인산염(phosphate)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주요 광물자원 거점으로, 향후 리튬 광상과 희토류 자원 개발도 추진될 전망이다.

마스터플랜에는 광물자원 개발 확대와 함께 연방 동계스포츠센터 조성, 스키리조트 추가 개발,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콜라과학센터(KSC RAS)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클러스터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 폴라르니예 조리 지역에서는 콜라 원전 2(Kola NPP-2) 건설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됐다. 과학기술 클러스터는 북극지역의 안전 확보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산업투자와 함께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되고 있다. 키롭스크에서는 제7학교의 대규모 보수공사가 완료됐으며, 올해 실내 축구장 건설과 음악학교 및 아동 청소년 도서관 보수사업이 시작됐다. 아파티티에서도 립키노 볼로토 공원 정비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측은 산업투자만으로 북극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과학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회 기반시설 및 정주환경 개선을 산업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에 대한 조사도 실시됐다. 키롭스크-아파티티와 몬체고르스크 광역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의료서비스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폐기물 및 제설 문제는 43%, 여가활동 여건은 40%, 주택 및 공공서비스 문제는 38%가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대규모 산업개발과 함께 의료·주거·교육·문화시설을 개선해 전문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을 유치하는 것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인구 약 4만 1,700명이 거주하는 몬체고르스크 광역권은 니켈과 코발트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북극의 핵심 비철금속 산업거점이다. 러시아는 몬체고르스크를 세계 최대 규모이자 러시아 유일의 정련 니켈·코발트 생산 중심지로 설명한다. 이 광물이 현대 제조업뿐만 아니라 저탄소 경제 전환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몬체고르스크 마스터플랜은 이 지역을 서부 러시아 북극의 현대적인 금속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산업 테크노파크 조성, 동계스포츠와 요트·세일링 등을 활용한 관광단지 개발, 라플란드 자연보호구역 방문자센터 건설, 몬체고르스크 지역병원 의료단지 현대화 등이 추진된다.

학교와 주거시설, 폴리테크닉 칼리지 등의 개보수 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유치원 보수와 메탈루르그고프 대로 정비사업 등이 시작됐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러시아의 북극개발 정책이 자원개발 및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는 방식에서 산업·과학기술·인력·정주환경을 연계하는 지역개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키롭스크-아파티티의 인산염·리튬·희토류와 몬체고르스크의 니켈·코발트 등 전략광물 생산기반을 강화하면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인력양성, 도시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려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약 60%를 정부 예산 외 투자재원을 통해 조달될 예정인 만큼, 2035년까지 계획된 사업의 실제 추진 속도와 민간투자 확보 여부가 계획 실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출처: <https://portnews.ru/news/395807/>

야말 네네츠 자치구, 오지지역 연료 공급 약 80% 완료 (2026.8.20.)

러시아 야말 네네츠 자치구(Yamalo-Nenets Autonomous Okrug)가 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연료 공급을 약 80% 완료했다. 남은 물량은 석유제품 약 1만 6,000 톤과 석탄 6,900톤으로, 오는 10월 중순까지 공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야말 네네츠 자치구 정부에 따르면, 여름철 운송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석유제품 5만 톤 이상, 장작 950㎥, 석탄 5,000 톤 이상이 지역 내 오지 마을에 공급됐다. 이 지역의 연료 수송은 주로 하천을 이용해 이뤄지는 만큼, 당국은 북부지역 하천의 수위와 운항 여건을 고려해 지역별 공급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이미 연료 공급이 완료됐다. 크라스노셀쿠프스키(Krasnoselkupsky)와 나딤스키(Nadymsky) 지역을 비롯해 카트라보시(Katravoz), 오브고르트(Ovgort), 보샤호보(Vosyakhovo), 아조비(Azovy), 로프하리(Lopkhari), 피틀랴르(Pitlyar), 나홋카(Nakhodka), 기다(Gyda), 할라사베이(Khalyasavey), 파나예프스크(Panayevsk) 등에는 필요한 석유제품이 모두 공급됐다. 장작은 나딤스키와 야말스키(Yamalsky) 지역에 대한 공급이 완료됐으며, 오브고르트, 슈리시카리(Shuryshkary), 아조비, 피틀랴르 등에는 석탄 공급이 마무리됐다. 현재 확보한 연료는 다음 여름철 운송이 시작될 때까지 지역의 난방과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규모라고 자치구 정부는 설명했다.

드미트리 아파나시예프(Dmitry Afanasyev) 야말 네네츠 자치구 요금정책에너지·주택공공서비스국장은 오지지역에 대한 연료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름철 운송 초기에는 하천 수위가 빠르게 낮아지는 지역에 석유제품과 석탄, 장작을 우선 공급했으며, 현재는 상대적으로 수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송을 진행하고 있다.

야말 네네츠 자치구는 러시아 북극권에 위치해 있어 일부 지역은 육상 교통망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아 하천을 통한 물자 수송 의존도가 높다. 특히, 겨울철에는 수로 이용이 제한되는 만큼, 여름철 운항이 가능한 기간에 난방과 생활에 필요한 연료를 미리 공급·비축하는 것이 지역의 안정적인 겨울철 에너지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출처: <https://portnews.ru/news/395797/>

사하공화국, 제2복합물류센터 조성 추진...북극 물류 강화 (2026.8.20.)

사하공화국(Yakutia)이 북극권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젤료니미스키 하천항(Zelenomysky River Port)에 새로운 복합물류센터(Multimodal Logistics Center)를 조성할 계획이다. 러시아 연방 해상·하천교통청(Rosmorrechflot)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야쿠티야 지역의 두 번째 복합물류센터 조성 사업으로, 북극지역의 물류 효율성과 물자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은 러시아 연방 해상·하천교통청 차장 표도르 시실라코프(Fedor Shishlakov)가 주재한 실무회의에서 논의됐다. 실무그룹은 조속히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며, 러시아 측은 이번 사업이 북극권 물류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젤료니미스키 하천항은 사하공화국 북동부 체르스키(Chersky)에 위치하며, 니즈네콜림스키 지역(Nizhnekolymsky District)을 비롯한 야쿠티야 북부지역에 생활필수품과 각종 물자를 공급하는 주요 물류거점이다. 항만의 주요 취급 화물은 석탄이며, 이외에도 산업용품과 식료품을 실은 컨테이너, 목재 및 일반화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2025년 화물 처리량은 16만 3,000 톤을 넘어섰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6만 톤 이상을 처리했다.

러시아 정부는 젤료니미스키 강항에 복합물류센터가 구축되면 지역 내 물자 공급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북극 오지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물자 공급인 '북방 물자수송()'의 비용과 운송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화물의 환적 기능을 확보해 북극권 물류망에서 젤료니미스키 강항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젤료니미스키 하천항은 니즈니 베스타흐 화물터미널(Nizhny Bestyakh Cargo Terminal)이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기존에 승인된 로드맵에 따라 니즈니 베스타흐(Nizhny Bestyakh)에서도 복합물류센터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1단계 건설이 완료됐으며, 니즈니 베스타흐역과 터미널을 연결하는 8km 이상의 철도 인입선과 부두·배후 인프라가 구축됐다. 러시아는 두 물류거점의 운영과 개발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내 화물 환적체계를 효율화하고, 북극권 물자 공급과 북극항로 화물 처리를 위한 물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일본 정부, 남극 환경 보호 법률 개정안 시행 (2026.8.6.)

일본은 2026년 6월 「남극지역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남극지역에서 남극대륙에 상륙하지 않는 관광활동이나 과학적 조사활동을 실시하려는 일본 사업자도 새롭게 ‘확인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남극지역에서 외국 사업자가 실시하는 관광활동이나 과학적 조사활동에 일본인이 참가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환경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확인신청이란, 남위 60도 이남의 남극지역에서 활동하려는 일본 사업자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활동계획을 환경대신에게 제출하고, 그 활동 내용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법안은 2026년 6월 2일 의회에서 의결되었는데, 같은 달 10일 법률 제36호로 공포됐다. 일본 참의원은 2026년 8월 『입법과 조사』를 통해 지난 6월 개정된 남극환경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정책적 쟁점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부속서 VI의 체결을 위해, 남극지역 활동으로 환경상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활동 운영자에게 대응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환경대신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남극지역 활동의 범위를 조정해, 남극대륙에 상륙하지 않고 해역에서만 활동하는 관광선과 과학조사선도 사전 확인 대상에 포함했다.

법률을 개정한 배경에는 남극 관광과 선박 활동의 지속적인 증가가 있다. 남극에서는 과거에도 선박 좌초와 유류 유출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해 왔다. 2000년 무렵부터 관광선 운항과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시 남극의 취약한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5년 제28차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ATCM)에서 환경상 긴급사태 발생 시 활동 운영자의 책임과 대응조치를 규정하는 부속서 VI가 채택됐다. 이후에도 남극 관광은 계속 증가해 2024/25기간에는 선박 운항이 562회, 남극대륙에 상륙한 관광객이 8만 465명에 이르렀다.

부속서 VI는 채택 당시 28개 남극조약협약 당사국이 모두 체결해야 발효되지만, 2026년 5월 현재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이 아직 체결하지 않아 채택 후 20년 이상 발효되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도 그동안 국내법 정비 방안을 검토해

글 김주형 부연구위원
jhkim7664@kmi.re.kr

출처 1: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26pdf/20260806133.pdf
출처 2: https://www.env.go.jp/press/press_05230.html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왔으나, 어느 국가의 영토에도 속하지 않는 남극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어느 국가도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의 비용책임 등을 일본 국내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쉽지 않은 문제로 지적됐다.

2025년부터 일본 중앙환경심의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남극환경보호법 개정을 통한 국내 이행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2026년 3월 13일 환경대신에게 부속서 VI 체결을 위한 국내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답신이 제출됐다. 당시 남극에서 환경상 긴급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남극의 본래 상태가 유지된 자연환경 및 과학적 가치, 그리고 일본이 2026년 5월 히로시마에서 제48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48)를 개최한다는 점이 조기 법 정비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의회 심의에서는 ‘환경상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단 기준과 대응조치의 실효성이 논의됐다. 환경성은 대규모 유류 유출이나 야생생물의 서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 등이 환경상 긴급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극이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운영자와 일본 정부, 다른 남극조약 체결국 간 대응체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도 논의됐다.

둘째,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국제협력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남극은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자연환경이 특수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활동 운영자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남극조약 당사국과의 신속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체계를 확보하고, 일본 국내에서도 남극 환경과 해난사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의 부대결의에도 관련 전문인력 확보와 가이드라인 정비의 필요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남극 관광과 환경보호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논의됐다. 일본 정부는 남극 관광이 환경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관광객과 선박의 증가가 남극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관광사업자와 관광객에 대한 환경교육 강화, 관광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 지역 출입료와 같은 부담 방식 등도 거론됐다. 일본 정부는 향후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관광활동의 국제적 관리체계 구축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옵서버 국가 정책



글 엄단비 전문연구원
dbu@kmi.re.kr

출처1: <https://www.etvbharat.com/en/bharat/parliamentary-panel-recommends-government-to-consider-appointing-polar-ambassador-enn26073100155>

출처2: <https://indianexpress.com/article/india/appoint-polar-ambassador-become-full-member-of-arctic-council-suggests-panel-10811131/>

인도 의회 외교상임위원회, 정부에 장기 극지 정책 수립 권고 (2026.7.31.)

인도 의회 외교상임위원회(Parliamentary Standing Committee on External Affairs)는 7월 31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북극 및 남극 지역에서의 인도의 역할과 존재(India's Role and Presence in the Arctic and Antarctic Regions)」를 통해 정부에 극지 대사직 신설과 장기 극지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국민회의당(Congress) 소속 샤시 타루르(Shashi Tharoor)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회원국 전체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비북극 옵서버 국가들이 이미 극지·북극 대사직과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인도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극지 전담 대사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직위 신설은 인도가 외교 정책 구조에서 극지 지역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극지 관련 정책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극지 외교를 추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Ministry of External Affairs, MEA)는 위원회에 "인도는 규범 기반 접근 방식을 견지하며, 북극과 남극 모두에서 과학 중심적이고 환경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인도의 정치적·과학적 차원의 관여가 에너지 안보와 해상 항로 거버넌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중심 협력, 그리고 심해 채굴 및 어업 관련 국제 체제에서의 의무 이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북극 연구 활동 다수가 중단된 상황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인도가 외교 채널을 통해 나머지 7개 북극이사회 회원국에 러시아의 과학 협력 복귀 필요성을 설득할 것을 권고했다. 북극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러시아의 참여가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정부가 러시아 북극 연구기지 접근 가능성을 탐색할 것도 권고했다.

인도 지구과학부(Ministry of Earth Science)는 위원회에 "인도는 북극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갖추기 위해 러시아 북극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베리아 북동부 사하(Sakha) 공화국 체르스키(Chersky)에 위치한 러시아 북극 연구기지는 세계 3대 북극 기지 중 하나로, 북극 생물학, 지구물리학,

옵서버 국가 정책



대기물리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플라이스토세(Pleistocene) 동토층 연구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1만 1,000킬로미터 이상의 해안선과 다수의 도시를 보유한 인도에 있어 해수면 상승은 경제적·전략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극과 북극의 해빙 용해가 인도 몬순 기후 시스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극에서의 지속적인 인도의 존재는 국제 의사결정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극지 거버넌스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며, 남극조약 체제 내 미래 국제 논의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 기여한다고 위원회는 평가했다. 또한 인도의 남극 활동은 극한 환경에서의 기술 발전, 물류 역량, 인적 자원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도가 남극에 마이트리(Maitri)와 바라티(Bharati) 두 개의 연구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트리 기지는 쉬르마허 오아시스(Schirmacher Oasis)의 안정적인 무빙 지대에 건설되어 1989년부터 운영 중이며, 바라티 기지는 마이트리에서 약 2,500킬로미터 동쪽에 위치한 프린세스 엘리자베스 랜드(Princess Elisabeth Land)에 2012년 설립됐다. 위원회는 인도의 장기적인 과학적 존재를 강화하고 극지 분야에서 주요 국가군에 전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신규 마이트리(Maitri II) 기지의 신속한 건설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채택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북극이사회 내 아시아 옵서버 국가인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의 4자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위원회는 북극 정책의 범위를 기존의 과학 중심에서 지정학·전략 분야로 확대하고, 의약품 원료 물질, 에어컨 부품 등 핵심 광물 확보를 북극 외교의 중요한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인도의 광범위한 전략적·경제적 역량이 아직 발전 중인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신흥 도전과제를 반영하고 극지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 극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극소식

유럽 비온드 에피카 팀, 남극 빙하 코어 2.8km 굴착 성공...
120만 년 기후 기록 확보했다.
(2026.8.19.)

유럽의 비온드 에피카(Beyond Epica) 연구팀이 남극 빙하를 2.8킬로미터 깊이까지 굴착하는 데 성공하여 약 12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빙하 코어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4년간의 굴착 작업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구 기후 역사 연구에 있어 주요한 과학적 성취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남극 콩코르디아 기지(Concordia Station) 인근의 리틀 돔 씨 지점에서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지점의 평균 기온은 영하 35도(화씨 기준 영하 31도) 수준으로, 연구팀은 4년에 걸쳐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굴착을 이어갔다. 굴착은 빙하 기반암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남극의 광대한 빙상은 기후과학자들에게 지구 기후 역사의 주요 기록 보관소로 여겨진다. 빙하 내부에는 빙정이 처음 형성되던 순간에 포획된 고대 공기 방울과 먼지 입자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깊이 굴착할수록 더 오래된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확보된 빙하 코어는 지금까지 채취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빙하 코어 분석을 통해 지난 100만 년에 걸쳐 지구를 형성해 온 빙하기 순환에 관한 정보와 대기 중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빙하 코어 연구에서는 80만 년 전까지의 기록을 분석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해당 기간 중 가장 온난했던 시기에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농도가 현재 수준에 도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프로젝트의 이탈리아 빙하학자이자 총괄 조정관인 카를로 바르반테(Carlo Barbante)는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80만 년간 기록된 최고값보다 50%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글: 엄단비 전문연구원
dbu@kmi.re.kr

출처: https://www.futura-sciences.com/en/theyve-just-unlocked-1-2-million-years-of-earths-secrets-in-antarctica_38002/

김지영

전문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극지전략연구실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북극아카데미, 교육을 넘어 국제협력 네트워크로

북극은 더 이상 북극권 국가들만의 관심 지역이 아니다. 기후변화와 해빙 감소,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 에너지와 핵심광물, 생물다양성, 원주민의 삶, 그리고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까지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얹히면서 북극의 변화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무역과 해운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북극은 기후·환경뿐만 아니라 해운과 조선, 공급망, 과학기술과 국제협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의 정책적 대응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극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KMI)은 미래세대가 북극을 이해하고 국내외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북극아카데미(Arctic Academy)’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북극아카데미는 이제 일회성 교육행사를 넘어 국내외 미래세대와 북극 전문가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교육·교류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12년간 이어진 북극 미래세대 교류

북극아카데미는 2015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북극권 학생과 국내 대학(원)생에게 북극의 정책과 과학, 산업, 국제협력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북극아카데미를 수료한 학생은 해외 198명, 국내 188명 등 총 386명에 이른다. 참가자들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도 연구기관과 공공기관, 산업계, 언론,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북극 및 해양 분야의 차세대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북극아카데미의 중요한 특징은 북극을 연구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북극에 실제 거주하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 청년들이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다. 북극권 원주민을 포함한 해외 학생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국내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공동과제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다른 지역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넓혀왔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북극아카데미 수료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고 있다. 북극이사회가 설립한 북극대학 네트워크인 UArctic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 수료생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극지의 창

북극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결국 북극아카데미가 지난 12년 동안 축적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참가자의 숫자만이 아니라, 북극권과 한국의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관계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북극을 둘러싼 변화를 한자리에서 배우다.

제12회 북극아카데미에는 북극권 원주민 학생 등을 중심으로 선발된 해외 참가자 11명과 국내 대학(원)생 22명 등 총 33명이 참가했다.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올해 프로그램은 북극정책과 거버넌스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과학, 환경, 해운·조선, 안보, 원주민, 관광, 현장견학과 문화체험, 참가자 워크숍 등을 결합한 종합적인 교육·교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해 프로그램에서 특히 중점을 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북극의 모습을 여러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었다. 첫날에는 한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 그린란드와 퀘벡 등 북극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와 지역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외교부와 주한 노르웨이·캐나다·핀란드 대사관, 퀘벡정부 대한민국 대표부, 그린란드 대표부 등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각 국가와 지역이 바라보는 북극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했다.

이는 북극을 하나의 시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노르웨이는 변화한 안보환경 속에서 북부지역의 안보와 회복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했고, 캐나다는 북극 주권과 안보뿐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누이트와 북부 주민의 참여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핀란드는 기후변화와 북극 주민, 전문성, 인프라와 물류를 연계한 범정부 차원의 북극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원주민의 권리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북극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은 여러 국가의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새롭게 포함된 그린란드와 퀘벡의 사례는 북극정책을 국가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린란드는 자치권 확대와 경제적 자립, 기후변화, 수산업과 핵심광물, 국제협력 등을 중심으로 북극의 미래를 설명했으며, 퀘벡은 북부지역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와 물류, 과학외교 등을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북극 거버넌스가 중앙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원주민 공동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극지의 창

국제정세가 변해도 이어지는 북극협력

올해 북극아카데미에서는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 국제협력체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현재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덴마크 왕국의 북극고위관리(SAO) 의장이 직접 참여해 북극이사회 설립 배경과 운영체계, 원주민 참여, 워킹그룹의 역할과 최근 활동 등을 소개했다.

북극이사회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북극 8개국과 원주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표적인 북극 거버넌스 체계다. 특히 원주민 단체가 영구참여자로 참여해 정책 논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은 다른 국제협력체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AMAP, CAFF, EPPR, PAME, ACAP, SDWG 등 6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환경, 생물다양성, 해양, 오염, 지속가능발전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정책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북극의 국제협력 환경 역시 크게 달라졌다. 북극이사회 활동도 한동안 상당한 제약을 받았지만 최근 온라인 회의를 중심으로 워킹그룹 활동과 과학협력이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참가자들에게 북극이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는 전략적 공간인 동시에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처럼 국가 간 협력이 불가피한 공간이라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나라의 역할도 함께 다뤘다.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가 된 이후 과학연구와 워킹그룹 활동,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북극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옵서버는 북극이사회 의사결정권을 갖지는 않지만 과학연구, 전문지식 제공,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다산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등을 기반으로 북극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생물다양성, 해양환경, 블랙카본, 해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극이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북극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북극과 우리나라가 생태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 북극에서 번식하는 많은 철새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우리나라의 갯벌과 습지를 이용한다. 따라서 북극의 생태계 변화는 먼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태환경 과도 연결된 문제다. 북극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공동 모니터링과 데이터 공유, 철새 이동경로 및 습지 보호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극지의 창

과학협력 역시 북극 국제협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다뤄졌다. 북극은 광대한 지역과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한 국가의 연구역량만으로 충분한 관측과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를 비롯한 국제 연구협력체를 중심으로 장기 관측자료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자연과학뿐 아니라 원주민, 보건, 사회경제, 지속가능발전 등으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차세대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참여 역시 강조되고 있다.

강의실을 넘어 현장에서 경험한 북극

북극아카데미는 강의를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가자가 직접 경험하고 함께 문제를 고민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올해 참가자들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선박·해양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봤다. 특히 극지 운항과 관련된 연구시설과 기술을 직접 확인하면서 강의에서 배운 북극해운과 조선산업의 내용을 실제 연구개발 현장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문화교류도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고신대학교 태권도선교학과와의 협조로 마련된 태권도 체험을 통해 해외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태권도 정신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부산의 주요 문화공간을 방문하면서 국내외 참가자들이 강의실 밖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태권도 체험은 단순한 관광 프로그램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참가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참가자들이 직접 북극 문제를 고민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워크숍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북극 관련 주제를 선정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 평가와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으며, 정책 이해도와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외 참가자 1명과 국내 참가자 1명을 우수학생으로 선정했다. 이러한 과정은 참가자가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는 데서 벗어나 북극 현안을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교육과정으로 북극아카데미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수료’에서 끝나지 않는 북극아카데미

올해 북극아카데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날 열린 홈커밍데이다.

극지의 창

서울에서 진행된 홈커밍데이에는 올해 참가자뿐만 아니라 기존 북극아카데미 수료생들이 함께 참여해 연구와 진로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의 네트워크를 이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과거 북극아카데미 참가자가 다시 강연자로 참여했다. 제3회 북극아카데미 수료생 전호균 박사, 손경령 박사를 비롯한 기존 참가자들이 자신이 북극아카데미 이후 어떤 연구와 활동을 이어왔는지 후배 참가자들과 공유했다. 이는 북극아카데미가 12년 동안 지속되면서 과거의 참가자가 연구자와 전문가로 성장하고, 다시 새로운 참가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북극아카데미 수료생들은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공기관, 산업계, 언론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대학원에 진학해 북극과 해양 분야의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 북극아카데미의 성과를 매년 몇 명이 참가하고 수료했는가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수료생들이 이후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가 북극협력의 주체가 되도록

지난 12년 동안 북극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기후변화와 해빙 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북극항로와 핵심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안보와 지정학적 경쟁 역시 북극의 중요한 의제가 됐다. 동시에 원주민의 권리와 참여,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개발, 과학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세대에게 북극을 단순히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나 '기후변화의 최전선'이라는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극의 환경과 주민, 경제와 산업, 국제법과 거버넌스, 과학과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북극아카데미가 여러 북극 국가와 지역정부, 국제협력체, 연구기관과 전문가를 한자리에 연결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북극을 살펴보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북극아카데미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점을 유지하면서 '교육'에서 '참여'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북극 관련 연구와 국제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료 이후에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극이사회와 국제 연구협력체에서도 청년과 차세대 연구자의 참여를

극지의 창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향은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덴마크 왕국의 북극이사회 의장국 역시 청년회의 등을 통해 미래세대의 정책 참여 확대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북극권 국가는 아니지만 지난 30여 년간 과학연구와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북극과의 관계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러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연구의 성과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북극의 변화를 직접 마주하고 새로운 협력의 방식을 만들어갈 미래세대 간 네트워크는 우리나라 북극협력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북극아카데미의 궁극적인 성과도 여기에 있다. 5일간의 교육을 통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전달했는가를 넘어, 한국의 청년과 북극권의 청년들이 만나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함께 북극의 미래를 고민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과거 북극아카데미에 학생으로 참여했던 수료생이 다시 전문가와 강연자로 돌아오고 새로운 참가자들이 그 경험을 이어받는 과정이 계속된다면 북극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북극권과 비북극권을 연결하고 미래의 북극협력을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림〉 제12회 북극아카데미 개회식(위)·수료식(아래)



자료: KMI 제공

북극과
사람

글: 김주형 부연구위원
jhkim7664@kmi.re.kr

지역에서 태어날 권리: 이누이트 조산과 공동체 기반 돌봄

■ 원주민 조산사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이누이트의 권리

해마다 8월 9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원주민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s)’이다. 2026년의 주제는 ‘원주민 조산사에 대한 존중: 생명과 건강한 삶의 보호(Honouring Indigenous Midwives: Safeguarding Life and Well-being)’이었다. 유엔은 원주민 조산사를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공동체의 ‘지식 보유자(knowledge holders)’이자 돌봄 제공자·교육자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원주민의 언어, 가치, 관행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8월 10일 열린 유엔 기념행사에서도 원주민 조산술의 인정, 문화적으로 적절한 보건서비스, 원주민 주도의 돌봄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등이 논의됐다.

■ 북극지역 출산서비스의 변화와 지역 외 출산 관행

이 주제는 북극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캐나다 북부의 여러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오랫동안 임신과 출산을 공동체 안에서 담당해 왔지만, 20세기에 들어 의료서비스가 제도화되면서 출산 장소가 지역 밖의 병원으로 이동한 사례가 나타났다. 캐나다 퀘벡 북부의 이누이트 지역인 누나비크(Nunavik)도 그중 하나다.

누나비크 서부 허드슨만 연안에서는 한때 임신부가 출산을 앞두고 가족과 공동체를 떠나 남쪽의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다. Inuulitsivik Health Centre에 따르면, 임신 약 37주가 되면 몬트리올이나 온타리오주의 무스팩토리(Moose Factory) 등으로 이동해 출산하는 방식이 운영되기도 했다.

■ 누나비크 지역 기반 조산서비스의 도입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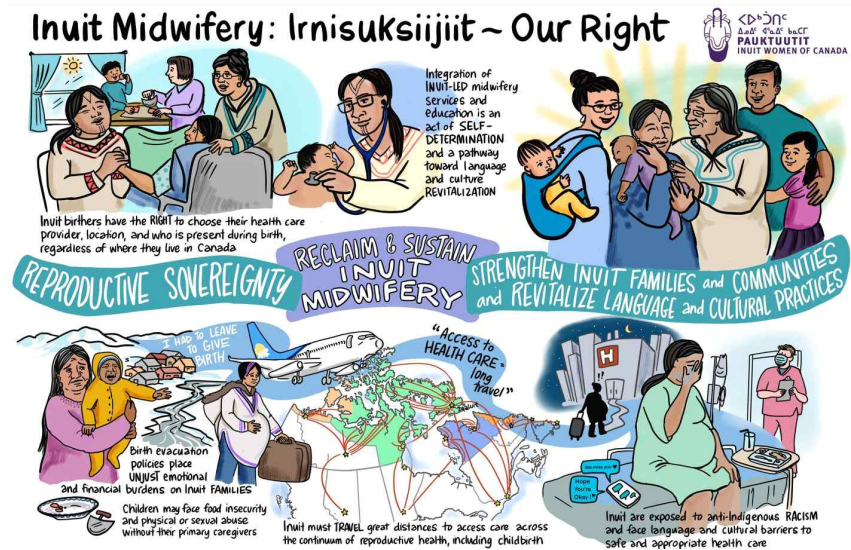
언어와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가족과 떨어져 출산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됐고, 이를 배경으로 1986년 푸비르니투크(Puvimittuk)에 첫 출산센터가 개설되면서 지역 기반 조산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이누크주악(Inukjuak)에 1998년, 살루이트(Salluit)에 2004년 출산시설과 조산서비스가 확대되었다.

북극과 사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과거의 전통적인 출산 방식을 그대로 복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누나비크의 조산 모델은 이누이트의 지식과 언어를 현대 의료체계 안에서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조산사는 임신부터 출산, 산후관리까지 담당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과 협력하며, 위험도가 높은 임신의 경우에는 남쪽의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또한 지역 안에서 조산사를 양성하는 교육체계를 통해 이누이트 여성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기반한 출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5년 발표된 연구(Kimberly Moorhousen et al., 2025)에서는 Inuulitsivik 조산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한 주요 요인으로 이누이트의 가치와 언어, 이누이트의 리더십, 지역 내 조산사 교육, 조산사 주도의 다학제적 돌봄, 원격 지역에 맞게 조정된 조산사의 역할 및 외부 협력자와의 전략적 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이누이트 조산: Irnisuksijit - 우리의 권리



이누이트 여성의 지역사회 내 출산권, 이누이트 조산사에 의한 돌봄, 재생산 자기결정권 및 문화-언어의 지속성을 강조

출처: PAUTUUTIT

■ 북극지역 보건서비스와 원주민 자기결정권에 대한 시사점

누나비크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출산의 장소를 단순한 의료 접근성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누이트 조산사들은 아기가 이누이트의 땅에서 이누이트의 손을 통해 태어나는 것이 공동체에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북극과 사람

지역에서의 출산은 가족이 출산 과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누이트어와 지역의 출산 지식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과도 관계된다. 다만 이러한 경험을 모든 이누이트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현재도 산모의 거주지역과 건강상태, 의료여건에 따라 다른 지역이나 남쪽의 전문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북극은 흔히 기후변화나 자원개발, 지정학의 언어로 설명된다. 그러나 그곳에는 태어나고 성장하며 다음 세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있다. 누나비크의 조산사 사례는 북극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의료시설을 얼마나 많이 공급할 것인가 뿐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누가 설계하고, 어떤 언어와 지식을 담아 제공할 것인가도 중요한 질문임을 보여준다. 2026년 세계 원주민의 날이 조산사에게 주목한 이유 역시 출산이라는 일상적인 순간을 통해 원주민 공동체의 건강과 문화, 그리고 자기결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https://www.un.org/en/honouring-indigenous-midwives-advancing-rights-ensuring-cultural-continuity-and-promoting-intergenerational-well-being>
<https://www.un.org/en/observances/indigenous-day>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22423982.2025.2576994>
https://nrbhss.ca/sites/default/files/documentations/corporatives/regional_framework_2015_en.pdf
<https://www.inuulitsivik.ca/healthcare-and-services/professional-services/midwives/?lang=en>
<https://pauktuutit.ca/midwifery>
<https://www.inuitcircumpolar.com/press-releases/international-day-of-the-worlds-indigenous-peoples>

극지e야기(KPoPS)는
북극과 남극의 사회, 경제,
인문, 자연, 원주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극지정보
포털입니다.

<http://www.koreapolarportal.or.kr/>

극지e야기 KPoPS Korea Polar Portal System

회의, 조약, 동향 등을 검색해보세요

홈 | 사이트맵 | English

소개 | 극지 정책 | 극지 협력 | 극지 동향 | 극지 소식

쇄빙선 아라온호

연구와 보급지원 항해로 남극극을 누빈다
남/북극지방에서 연구·보급 및 지원활동 등을 수행중인 아라온호

최신영상과 사진 자료를 둘러보기

공지사항 + 국가 정책 및 제도 + SNS 소식

공지	2019 우수 미래극지연구자 국외 포	2019-01-18	비북극	[중국] 중국 남극과학탐사대 눈보라	2019-01-29
공지	2018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	2018-11-28	비북극	[일본] 미츠이 산업, 러시아 노바텍	2019-01-29
공지	2017년 발간 북극이사회 자료 국문	2018-10-05	북극	[미국] 미국, ANWR 개발 관련 환경	2019-01-28
공지	2018년도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	2018-09-20	비북극	[중국] <중국북극발전 및 안보전략	2019-01-28
공지	2018년 극지전문인력양성(북극) 포	2018-09-04	북극	[러시아] 자원환경부, 고난이도-고	2019-01-28

극지연구센터 2019-01-31
대외경제협력, 가스운반선 건조에 185억
루블 대출 예정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총리는 최근 열린 연례 국가연례에서 사
베타(Sabeta) 항 천연가스 시범 발전의 일
원인 산형 북극에 천연가스 광물운반선 건
조에 대외경제협력(MEB)이 185억 루블 규
모의 대출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회의는 자원개발에 따른 원료 생산량 증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극 및 남극과
관련한 해외 주요 최신뉴스를 매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KMI 홈페이지-정기간행물-
극지해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https://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정보 | 동향정보 | 세미나 | KMI소식 | KMI소개 | 고객센터 | 정보공개 | 구독 신청 | ENGLISH

연구정보 | 동향정보 | 세미나 | KMI소식 | KMI소개 | 고객센터 | 정보공개 | 구독 신청 | ENGLISH

동향정보

극지해소식

극지 동향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향정보지입니다.

번호	호수	발행일	조회 / 다운	파일
99	제134호	2024-04-30	72 (56)	
98	제133호	2024-03-29	116 (78)	
97	제132호	2024-02-29	105 (105)	
96	제131호	2024-01-31	92 (61)	

구독 신청

발간 간행물

- KMI 국제물류위클리
- KMI 주간 해운시장포커스
- KMI 주간 주요수산물 수급리포트
- IMO 국제해사 정책동향
- 아시아선리포트
- 극지해소식
- KMI 북방물류리포트
- KMI 동향분석
- 항만과 산업
- KMI 항만 서비스 지표
- 국제해양장사리포트
- 해양수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
- KMI 인포그래픽
-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 KMI 해운시황보고서
- Position Paper

중간 간행물